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 A Comparis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원혜준**

교수 김명순***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Master Course : Won, Hye-Jun

Professor : Kim, Myoung-Soon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A total of 154 pairs consisting of 77 pair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77 pairs of children and mothers from general families along with 76 teachers in charge of the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the family type.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levels differed according to family type. Therefore, to underst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gene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ach child's environment.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s), 유아의 놀이성(children's playfulness), 유아의 의사소통능력(children's communicative ability),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I.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화, 대중화, 정보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 간 정보,

기술, 자본, 노동,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로 대표적인 비-이민 전통 국가이자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오던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김현선, 2006).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계 주민은 1,354,414명(귀화자 포함, 불법체류자 168,545명 불포함)으로(법무부, 2011)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 석사학위논문의 원자료를 일부 사용하였음.

** 주저자 : 원혜준 (E-mail : whj1006@naver.com)

*** 교신저자 : 김명순 (E-mail : Kimms@yonsei.ac.kr)

49,773,145명(행정안전부, 2010)의 2.72%에 해당하며(1990년의 25배 상승), 이는 우리 사회의 시민 36.7명 중 한 명은 '외국인'임을 의미한다.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9.2%인 403만 명(10명 중 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계일보, 2007).

1980년대 말~1990년대 초까지도 외국인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이주의 연결망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한국사회의 10~15년 사이에 일어난 압축적인 이주의 전개는 세계적으로 매우 특수한 현상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처럼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단계'(장미혜, 2008)로 들어서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이슈와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화 현상,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는 가치관의 변화 및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증가를 들 수 있다(김유경, 2009).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2010년 34,235 건으로 총 우리나라 혼인 건(326,104) 중 10.5%를 차지하며, 이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비율이 77%(26,274건)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결혼이민자 성별 구성현황 역시 전체 167,090명 중에 외국여성이 89.7%(149,853명)를 차지하여(행정안전부, 2010)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이 가정들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다문화 자녀 121,935명 중에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62.1%(75,776명)로 나타나(행정안전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 여성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미취학 연령 유아들이 가장 많음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과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진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분류되며(권순희, 2006), 그 중 국제결혼가정은 남성과 여성 둘 중 한명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의사소통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남편의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이혼율도 매우 높아 다문화가정의 해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윤형숙, 2004). 이혼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중 10.8%인 1천2백건은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있으며, 외국인과의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 총수는 1,513명으로 이중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미성년 총 자녀수는 981명(64.8%)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1).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도 최근 새로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제결혼가정 자녀현황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현황을 비교한 2008년 10월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 총 24,867명 중 24.5%인 6,089명이 정규교육권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탈락률'이 초등의 경우 22배, 중학교 9.9배, 고등학교의 경우 8배나 높은 결과다(광주드림, 2008).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중 53%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소득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겪는 언어, 문화적 갈등, 사회적 편견과 같은 어려움과 함께 빈곤문제에 동시 노출되어 있어, 건강 및 기초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은 물론, 자녀양육과 교육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인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특히 취학 전 유아)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 변인에 제한되어 있다. 현재 국내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은 결혼이민 여성의 언어(한국어)와 관련된 연구(백미옥, 2007; 이경연, 2007)), 결혼이민 여성의 현황과 실태 및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보라, 2008; 정귀자, 2009), 결혼(부부관계)에 관련된 연구(김오남, 2006; 이지혜, 2007)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언어발달(황상심, 2010), 기관적응(정민영·정정희, 2010), 프로그램의 효과(김혜영, 2010), 교사인식(구수연, 2010)과 관련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일반가정에 비해 다문화가정은 어머니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연구의 수가 매우 적고, 그 변인도 언어적인 변인으로 극히 제한되어있어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들과 자녀의 발달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다문화가정 중 특히,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2006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3,264건 중 자녀양육 관련 상담이 887건(27.1%)으로 가장 많았다(안산신문, 2007).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를 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2%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양옥경 등,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는 한국어소통능력 미흡, 양육비용, 자녀양육자 및 보육 시설의 부재, 자녀양육방식 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많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댁식구의 도움정도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최나야 등, 2009) 양육부담은 더욱 가중되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아동 양육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박성연·이숙, 199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나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비교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은 아동기 자녀의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면서 이들 가정의 자녀가 소외나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영주, 2008). 보건복지부(2008)의 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은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무리는 없으나 독해, 쓰기, 작문능력 등의 학업성취가 낮으며, 때때로 언어발달 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소극적이며, 폭력 또는 과잉행동과 같은 정서장애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가정의 자녀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로 인해서 결정적 시기에 언어자극이 결핍되어 언어지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박미경·엄정애, 2007; 서현·이승은, 2007).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발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어능력의 부족을 꼽고있어(이승은·서현, 2008)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신호하기, 글쓰기와 읽기,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하는 언어적인 소통과 억양, 강세 등의 부차언어적 부호(paralinguistic cues),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단서(nonlinguistic cues), 그리고 언어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상위언어적 단서(meta-linguistic)를 포함하는 언어 이외의 요소들에 의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Owens, 2005).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말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이다(Hymes, 1974). 이처럼 유아기의 언어능력을 포함하는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은 단순히 말을 잘 하고 못하고의 일차원적이 아닌, 사회적능력(McCabe & Meller, 2004), 인지발달(歐陽俊林, 1999), 사고능력(주영희, 1983), 창의성(강혜련, 2000) 등 유아기의 주요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놀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놀이성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 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놀이의 질적 특성의 한 양식이며 유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외현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놀이에 대해 갖고 있는 내적동기, 발달상태에 따라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Barnett, 1991). 실제로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성(이혜경, 2010), 창의성(고소영, 2003; Lieberman, 1965; Singer & Rummo, 1973), 정서지능(유영의, 2006), 또래유능성(황윤세, 2006), 자기조절력(임윤주, 2010) 등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역 간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의 질적 특성이며 내적 성향으로 여러 가지 상황, 과정, 과제에 걸쳐 신뢰롭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Aquilar, 1985). 입원한 아동의 자연적 놀이행동의 양상과 특성을 파악한 오가실과 동료들(2006)의 연구를 보면, 입원아동의 놀이는 대부분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보이는 놀이형태는 사회적 놀이에서는 단독놀이, 인지적인 놀이에서는 기능놀이가 나타났다. 놀이내용은 전환놀이, 놀이를 통한 처치과정의 재현, 상상을 통한 놀이, 탐색, 또래와의 상호작용 놀이가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놀이적인 요소를 갖추기 힘든 병동에서도 유아의 놀이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기에 갖는 잠재적인 내적성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기관(학교)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Howes, 1983; Howes & Matheson, 1992)인 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김수정, 2007), 상대적으로 일반가정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놀이성은 일반가정 유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연구는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놀이관련 연구는 특정 놀이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 놀이치료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강보라, 2009; 김혜영, 2010; 선우현·김하정, 2009; 송요현·현온강, 2010; 송유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장영숙·조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나타낼수록 인지적 자발성이 줄어들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신체적 자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정(2001)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적-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유아의 적절한 언어(adaptive language) 사용 능력을 측정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조유나·홍지은, 2010; Elardo et al., 1977; Tamis-

Lemonda & Bornstein, 1989)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이 애정적·자율적·긍정적이면 유아의 언어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놀이를 관찰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놀이 중에 의사소통 규칙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자신의 욕구나 사고를 놀잇감으로 표현하면서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또래에게 전달한다. 또한 또래의 언어적·비언어적 욕구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놀이를 계속 유지시킨다. 유아는 놀이하는 동안 무의미한 음절과 단어와 구문의 반복사용 등을 통하여 언어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언어를 연습하고 의사소통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하영례, 2001). 유아의 다양한 놀이유형과 참여수준은 놀이성과 정적 상관관계(유애열, 1994; 최주연, 2001; 한석실·박주희, 2007)를 가지므로 유아의 놀이와 유아의 언어능력을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신은수·강의정, 2003; 하영례, 2001; Bruner, 1981; Farver, 1992; Giffin, 1984; Smilansky, 1968; Howes, 1992)을 통해서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주요 발달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변인 입에도 현재 세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그 자녀인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 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발달 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다문화 유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이들 부모를 위한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전북,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유아기관 43곳의 65개 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 77명, 일반가정 유아 77명 총 154명과 선정된 유아의 어머니 1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아버지의 연령은 높고, 어머니의 연령은 낮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률은 다문화가정에 비해 일반가정이 높고,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기능·단순·노무·판매·서비스 직종에, 일반가정의 부모는 전문·기술·행정·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기관(학급)에 재원 중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를 선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다문화가정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보건복지가족부, 2009)로 전체 국민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이 3%인 것에 비하면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Crase와 그의 동료들(1978)의 아이오와 부모양육행동 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홍계옥(1994)이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로는 합리적지도(8문항), 제한성(5문항), 애정성(8문항), 반응성(5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합리적지도 .81, 제한성 .63, 애정성 .67, 반응성 .72, 양육행동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놀이성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Lieberman(1965)의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1)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PS는 취학 전 만2세~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찰자 평정 척도로, 본 연구에서 관찰자는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범 주	다문화가정(n=77)		일반가정(n=77)	
		아버지 n(%)	어머니 n(%)	아버지 n(%)	어머니 n(%)
부모 국적	한국인	68(88.3)	-	77(100.0)	77(100.0)
	외국인	9(11.7)*	77(100)**	-	-
부모연령	30세 이하	-	23(29.9)	1(1.3)	5(6.5)
	31~35세	4(5.2)	22(28.6)	18(23.4)	31(40.3)
	36~40세	19(24.7)	17(22.1)	37(48.1)	28(36.4)
	41~45세	37(48.1)	13(16.9)	13(16.9)	10(13.0)
	45세 이상	17(22.1)	2(2.6)	8(10.4)	3(3.9)
부모학력	초등학교 졸업	1(1.3)	6(7.8)	-	-
	중학교 졸업	5(6.5)	5(6.5)	-	-
	고등학교 졸업	44(57.1)	38(49.4)	22(28.6)	23(29.9)
	전문대 졸업	5(6.5)	8(10.4)	14(18.2)	18(23.4)
	대학교 졸업	18(23.4)	16(20.8)	26(33.8)	30(39.0)
	대학원 졸업	2(2.6)	1(1.3)	12(15.6)	5(6.5)
	자퇴·중퇴 및 기타	-	2(2.6)	3(3.9)	-
	무응답	2(2.6)	1(1.3)	-	1(1.3)
부모직업	기능·단순·노무직	23(29.9)	15(19.5)	7(9.1)	5(6.5)
	판매·서비스직	10(13.0)	7(9.1)	12(15.6)	11(14.3)
	사무직	11(14.3)	1(1.3)	20(26.0)	9(11.7)
	전문·기술·행정직	14(18.2)	4(5.2)	28(36.4)	19(24.7)
	기타	16(20.8)	10(13.0)	10(13.0)	8(10.4)
	전업주부	-	39(50.6)	-	25(32.5)
	무응답	3(3.9)	1(1.3)	-	-
	월 평균소득수준	150만원 미만	14(18.2)	-	3(3.9)
150만원이상~250만원미만		30(39.0)	-	10(13.0)	-
250만원이상~350만원미만		21(27.3)	-	19(24.7)	-
350만원이상~450만원미만		6(7.8)	-	17(22.1)	-
450만원 이상		5(6.5)	-	27(35.1)	-
무응답		1(1.3)	-	1(1.3)	-
유아성별	남아	41(53.2)	-	41(53.2)	-
	여아	36(46.8)	-	36(46.8)	-
유아연령	만 3세	56(36.4)	-	56(36.4)	-
	만 4세	54(35.1)	-	54(35.1)	-
	만 5세	44(28.6)	-	44(28.6)	-

*총 9명중 5명은 한국국적 취득함. **총 77명 중 38명(49.4%)는 한국국적 취득함.

이 척도는 Lieberman(1965)에 의해 아동의 놀이성 하위범주로 밝혀진 다섯 가지 변인, 즉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유아의 놀이성 하위범주별 Cronbach α 값은 신체적 자발성 .84, 사회적 자

발성 .81, 인지적 자발성 .78, 즐거움의 표현 .84, 유머감각 .85, 놀이성 총점은 .95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전국적 규모의 NICHD 종단적 아동 연구에 사용하였던 척도(Caregiver Questionnaire packet: CQP)를 이영과 김명순(1999)이 번역한 것 중,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의사

소통능력 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별 유아가 교사나 다른 또래와 언어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언어이해, 언어표현, 고쳐 말하기, 자연스런 표현, 듣기, 언어유창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총 18문항은 '유아와 교사의 의사소통'(11문항)과 '유아와 다른 아동과의 의사소통'(7문항) 두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유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어른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재차 말하거나 질문을 바꾸어 물어보는 정도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가의 여부 등을 측정하며, '유아와 다른 아동과의 의사소통'은 아동이 하는 말을 다른 아동들이 이해하는 정도, 다른 아동의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듣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균보다 훨씬 우수하다'에서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을 더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유아와 교사의 의사소통은 .95, 유아와 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은 .93, 의사소통능력 전체는 .9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검사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K구의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 각 5명과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은 모두 중국(조선족)이었으며, 국내 거주기간은 모두 만 5년 이상이였다. 어머니의 경우 양육행동에 대한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의 질문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와 답변을 체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한 결과 문항의 수가 적어 답을 하는데 부담이 적었으며, 문항의 내용을 읽고 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아 질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기간은 2011년 2월 15일부터 4월 31일까지였으며, 연구도구는 예비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었던 어머니 양육행동 검사지와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검사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섭외하는 방법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가입한 기관을 섭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다문화가정 유아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과 우편을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채용 수가 많고, 기관의 소재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채용 수가 많은 경

기도 A시에 있는 기관들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대부분 중국 어머니들이었고, 중국 어머니들의 문항이해를 위한 방안을 요청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구를 번안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한 명 채용하고 있거나, 소재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전화와 연구안내문을 포함한 편지를 동봉하여 등기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한 날로부터 1주일 후 교사에게 회수여부를 확인하고, 회수가 완료된 기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수거하여 분실이 되는 설문지가 없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가입(등록)한 기관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어머니들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다음 시간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어머니들의 동의하에 자녀가 채용중인 기관을 직접 연구자가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방법은 다문화가정 유아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회수하였다.

일반가정의 유아 선정방법은 다문화가정 유아를 다니는 기관에서 성별과 연령(월령)이 동일한 일반가정 유아를 표집하였다. 이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비교할 때, 채용 기관의 유형과 운영방식,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정은 신·구학기가 교체되는 시점에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위해서 구 담임교사가 평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학기 담임교사가 2주 이상 직접 관찰한 결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신·구 담임교사의 평정여부는 기관과 교사의 상황 및 판단에 따라 평정하도록 의뢰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2.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크롬바 알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정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정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어머니들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가정 유형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1) 가정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총점은 총 130점 중 전체 평균은 102.16점이었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101.26점, 일반가정 어머니는 103.06점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범주 중 애정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0, p<.05$), 합리적지도, 제한성, 반응성의 하위범주와 양육행동 총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가정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어머니보다 양육행동 하위 범주 중 애정성이 높았고, 양육행동 총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가정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 총점은 총 115점 중 다문화가정 유아 76.30점, 일반가정 유아 88.64점으로, 일반가정 유아의 놀이성이 더 높은 점수였고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89, p<.001$). 즉, 일반가정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놀이성 점수가 높았다. 놀이성의 하위범주 중 신체적자발성($t=4.03, p<.001$), 사회적자발성($t=5.45, p<.001$), 인지적자발성($t=5.90, p<.001$), 즐거움의 표현($t=5.17, p<.001$), 유머감각($t=4.95, p<.001$)의 모든 범주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놀이성에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자발성이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즐거움의 표현이 많고, 유머감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유형에 따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총점은 총 90점 중 다문화가정 유아 55.34점, 일반가정 유아 67.08점으로, 가정유형에 따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82, p<.001$).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를 포함한 기관 내 성인과의 의사소통($t=5.79, p<.001$), 유아와 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t=5.51,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 유아가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높았다.

<표 2> 가정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의 평균과 t 검증 결과

변인	가정유형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전체	t 값
		(n=77)	(n=77)	(N=154)	
		M(SD)	M(SD)	M(SD)	
양육행동	합리적지도	31.77(4.58)	32.58(2.97)	32.18(3.87)	1.32
	제한성	18.97(2.78)	18.64(2.23)	18.80(2.52)	.83
	애정성	29.08(4.27)	30.34(3.45)	29.71(3.91)	2.0*
	반응성	21.39(2.80)	21.51(2.47)	21.45(2.63)	.28
놀이성	신체적 자발성	14.48(3.03)	16.34(2.68)	15.40(3.00)	4.03***
	사회적 자발성	15.92(3.29)	18.73(3.10)	17.32(3.48)	5.45***
	인지적 자발성	12.78(2.49)	15.13(2.46)	13.95(2.73)	5.90***
	즐거움의 표현	17.83(3.17)	20.30(2.74)	19.06(3.20)	5.17***
	유머감각	15.29(3.92)	18.14(3.21)	16.71(3.84)	4.95***
	총점	76.30(13.86)	88.64(12.09)	82.46(14.36)	5.89***
의사소통	성인과의 의사소통	33.90(8.17)	41.24(7.55)	37.58(8.67)	5.79***
	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	21.43(4.99)	25.83(4.92)	23.63(5.41)	5.51***
	총점	55.34(12.89)	67.08(12.14)	61.20(13.80)	5.82***

*p<.05, ***p<.001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는 가정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과 어떠한 하위범주에서도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총점과 놀이성 총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일반 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 범주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사회적 자발성($r=.24, p<.05$), 즐거움의 표현($r=.27, p<.05$), 유머감각($r=.29, p<.05$)

놀이성 총점($r=.27, p<.05$)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성과 신체적 ($r=.23, p<.05$), 인지적 자발성($r=.24, p<.05$), 즐거움의 표현($r=.29, p<.01$), 유머감각($r=.27, p<.05$), 놀이성 총점($r=.29, p<.01$)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놀이성이 높았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는 가정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제한성이, 일반가정 어머니의 경우 제한성과 애정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의사소통 하위범주별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성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하위범주 중 교사와의 의사소통능력과 양육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Pearson 상관계수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문화 가정	1. 합리적지도	1	.66**	.61**	.55**	.16	.12	-.03	.17	.20	.15	.33**	.36**	.35**
	2. 제한성		1	.47**	.48**	.08	.05	-.05	.12	.13	.08	.24*	.26**	.26*
	3. 애정성			1	.44**	.07	-.10	-.12	-.00	.01	-.03	.08	.10	.09
	4. 반응성				1	-.02	-.05	-.18	-.07	-.03	-.07	.14	.15	.15
	5. 신체적 자발성					1	.52**	.61**	.71**	.80**	.84**	.52**	.44**	.50**
	6. 사회적 자발성						1	.75**	.71**	.63**	.82**	.69**	.69**	.70**
	7. 인지적 자발성							1	.79**	.67**	.86**	.55**	.51**	.54**
	8. 즐거움의 표현								1	.80**	.92**	.68**	.64**	.68**
	9. 유머감각									1	.91**	.66**	.59**	.64**
	10. 놀이성 총점										1	.72**	.66**	.71**
	11. 교사와 의사소통											1	.91**	.99**
	12. 유아 간 의사소통												1	.97**
	13. 의사소통 총점													1
일반 가정	1. 합리적지도	1												
	2. 제한성	.51**	1											
	3. 애정성	.53**	.26*	1										
	4. 반응성	.46**	.29*	.24*	1									
	5. 신체적 자발성	.15	-.01	.23*	.16	1								
	6. 사회적 자발성	.24*	.18	.20	.07	.43**	1							
	7. 인지적 자발성	.22	.09	.24*	-.01	.51**	.76**	1						
	8. 즐거움의 표현	.27*	.17	.29*	.11	.67**	.71**	.78**	1					
	9. 유머감각	.28*	.08	.27*	.18	.73**	.54**	.64**	.80**	1				
	10. 놀이성 총점	.27*	.12	.29*	.12	.78**	.81**	.86**	.93**	.88**	1			
	11. 교사와 의사소통	.17	.27*	.31**	.04	.42**	.58**	.64**	.59**	.46**	.63**	1		
	12. 유아 간 의사소통	.20	.31**	.30**	.03	.36**	.66**	.65**	.59**	.41**	.62**	.89**	1	
	13. 의사소통 총점	.19	.29**	.32**	.04	.41**	.63**	.66**	.61**	.45**	.64**	.93**	.96**	1

* $p<.05$, ** $p<.01$, *** $p<.001$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N=154)

		B	β	β in	t	F	R^2
		(상수)	12.20				
1	사회적 자발성	2.73	.71		8.74***	76.33***	.51
	신체적 자발성			.17	1.77		
	인지적 자발성			-.05	-.36		
	즐거움의 표현			.31	2.71**		
	유머감각			.30	2.95**		
	합리적 지도			.25	3.26**		
	제한성			.22	2.86**		
	애정성			.16	2.01*		
	반응성			.19	2.43*		
		(상수)	8.15				
다문화 가정	2	사회적 자발성	2.61	.68		8.84***	
	합리적 지도	.70	.25		3.26**	48.43***	.57
	신체적 자발성			.14	1.54		
	인지적 자발성			.05	.37		
	즐거움의 표현			.27	2.56*		
	유머감각			.26	2.68**		
	제한성			.10	1.02		
	애정성			.01	.06		
	반응성			.07	.80		
		(상수)	8.95				
3	사회적 자발성	2.00	.52		5.47***		
	합리적 지도	.62	.23		3.01**		
	유머 감각	.84	.26		2.68**	37.40***	.61
	신체적 자발성			-.05			
	인지적 자발성			-.09			
	즐거움의 표현			.16			
	제한성			.09			
	애정성			.00			
	반응성			.09			
		(상수)	17.96				
1	인지적 자발성	3.25	.66		7.55***	56.96***	.43
	신체적 자발성			.10	.99		
	사회적 자발성			.30	2.31*		
	즐거움의 표현			.24	1.76		
	유머감각			.05	.43		
	합리적지도			.04	.49		
	제한성			.23	2.78**		
	애정성			.17	1.90		
	반응성			.05	.53		
		(상수)	4.14				
일반 가정	2	인지적 자발성	3.15	.64		7.60***	
	제한성	1.27	.23		2.78**	34.90***	.49
	신체적 자발성			.12	1.23		
	사회적 자발성			.25	1.94		
	즐거움의 표현			.18	1.38		
	유머감각			.04	.36		
	합리적지도			-.01	-1.04		
	애정성			.12	1.31		
	반응성			-.02	-.26		

*p<.05, **p<.01, ***p<.001

행동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r=.33, p<.01$), 제한성($r=.24, p<.05$)에서 정적상관이 있었고, 일반가정 유아는 어머니의 제한성($r=.27, p<.05$), 애정성($r=.31, p<.01$)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 간 의사소통능력과 양육행동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r=.36, p<.01$), 제한성($r=.26, p<.05$)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일반가정 유아는 어머니의 제한성($r=.31, p<.01$), 애정성($r=.30, p<.01$)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다문화가정은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와 제한성이 높을수록, 일반가정은 어머니의 제한성과 애정성이 높을수록 교사나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모두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의사소통 하위범주 중 성인과의 의사소통능력과 놀이성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신체적 자발성($r=.52, p<.01$), 사회적 자발성($r=.69, p<.01$), 인지적 자발성($r=.55, p<.01$), 즐거움의 표현($r=.68, p<.01$), 유머감각($r=.66, p<.01$), 놀이성 총점($r=.72, p<.01$)에서 정적상관이 있었고, 일반가정 유아는 신체적 자발성($r=.42, p<.01$), 사회적 자발성($r=.58, p<.01$), 인지적 자발성($r=.64, p<.01$), 즐거움의 표현($r=.60, p<.01$), 유머감각($r=.46, p<.01$), 놀이성 총점($r=.63, p<.01$)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유아 간 의사소통능력과 놀이성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신체적 자발성($r=.44, p<.01$), 사회적 자발성($r=.69, p<.01$), 인지적 자발성($r=.51, p<.01$), 즐거움의 표현($r=.64, p<.01$), 유머감각($r=.59, p<.01$), 놀이성 총점($r=.66, p<.01$)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일반가정 유아는 신체적 자발성($r=.36, p<.01$), 사회적 자발성($r=.66, p<.01$), 인지적 자발성($r=.65, p<.01$), 즐거움의 표현($r=.59, p<.01$), 유머감각($r=.41, p<.01$), 놀이성 총점($r=.62, p<.01$)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두 가정의 유아들 모두 신체적·사회적 자발성이 적 극적이고, 인지적 자발성이 높으며, 즐거움의 표현이 많고,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교사나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모두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정유형별로 산출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회귀모형 1에서 사회적 자발성($\beta=.71, p<.001$)은 유의한 독립변수로서($F=76.33, p<.001$), 종속변인인 의사소통능력의 51%를 설명한다. 회귀모형 2에서 사회적 자발성($\beta=.68, p<.001$)과 합리적 지도($\beta=.25, p<.01$)의 회귀계수는 유의하며($F=48.43, p<.001$), 사회적 자발성과 합리적 지도의 설명력은 6%증가하여 57%를 설명한다. 회귀모형 3에서 사회적 자발성($\beta=.52, p<.001$), 합리적 지도($\beta=.23, p<.01$), 유머감각($\beta=.26, p<.01$)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한 수준이며($F=37.40, p<.001$), 사회적 자발성, 합리적지도, 유머감각의 설명력은 4% 증가하여 61%를 설명한다. 일반가정의 경우는 회귀모형 1에서 인지적 자발성($\beta=.66, p<.001$)이 유의한 독립변수로서($F=56.96, p<.001$), 종속변인인 의사소통능력의 43%를 설명한다. 회귀모형 2에서 인지적 자발성($\beta=.64, p<.001$)과 제한성($\beta=.23, p<.01$)의 회귀계수는 유의하며($F=39.40, p<.001$), 인지적 자발성과 제한성의 설명력은 6%증가하여 49%를 설명한다.

즉,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하위범주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사회적 자발성, 합리적 지도, 유머감각, 일반가정의 유아는 인지적 자발성, 제한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수도권,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전북, 부산 지역 43개의 유아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만3세~5세 유아 154명과 그 어머니(다문화가정 77명, 일반가정 77명)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영향)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가정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가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 어머니들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 양육행동 중 애정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세 하위범주와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일반가정의 어머니가 애정성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지도와 반응성 점수는 일반가정 어머니가 높고, 제한성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 연구한 김정년(2009)의 한국가정의 한국인 어머니보다 농촌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가 더 거부적이고

덜 애정적이며, 더 통제적이고 덜 자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 연구한 연구결과가 적어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이 가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의 유아가 다문화가정의 유아보다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가정의 유아가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영역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김수정(200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김수정(2007)은 가정의 사회학적 특성 중 가정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45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들이 150만원 미만인 가정의 유아들보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유아들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유아들보다 놀이성 총점 및 사회적자발성, 인지적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모인 유아가 비취업모인 유아들보다 즐거움의 표현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저소득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는 능력 부족이 아동에게 주어지는 자극이나 경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자극을 아동이 인지하도록 하는 부모의 도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Udwin & Shmukler (1981)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놀이성이 낮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일반가정의 유아에 비해 사회경제적, 교육 수준이 낮은 요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는 언어적 자극과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자라왔던 문화와 양육방식 등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나 민족별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일반가정 유아가 '성인과의 의사소통', 다른 유아와의 의사소통'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 유아들이 다문화가정 유아들 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언어사용 능력 수준의 차이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교육방식,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종교·문화적 생활방식, 유아개인적인 변인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이 있다(夏瑞雪·周愛報, 2008).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정유

형 별로 유아의 인구학적 특성-어머니의 자녀 대화 시 사용 언어, 기관이동관련 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 질문지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실제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어머니가 66.2%(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가정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수준(질적·양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27.3%, 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5.2%, 모국어와 몸동작을 사용하는 어머니가 1.3%를 나타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일반가정 어머니의 유아들보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우현경 외 동료들(2009)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표현어휘력, 수용어휘력, 읽기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사용하는 경우 자녀 역시 어머니를 통해 더 많은 어휘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구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높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언어발달 지연현상이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특히 어휘력 및 읽기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어머니의 어휘량이 풍부하고 어휘내용이 다양할수록 유아의 언어발달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일반가정 대상의 선행연구(이혜련·이귀옥, 2005; 장유경 등, 2003; Carew, 1980; Choi, 2000)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 사용과 모국어의 혼재로 지연된 유아의 언어발달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들의 처음 등원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은 절반 이상(55.8%)이 기관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유아들(40.3%)보다 전학율이 높았으며, 바꾼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27.9%), 더 좋은 교육환경(38.2%),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기 위한 이유(17.6)들도 있었지만, 교사가 아동에게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래 유아들에게 맞고 다니는 등 기관적응의 어려움(9.3%)으로 기관을 옮겼다. 기관을 바꾸게 될 경우 유아가 새로운 기관 환경과 교사,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높은 전학율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낮은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에 선정된 유아의 기관 담임교사들에게 다문화가정 유아들 지도 시 가장 힘든 부분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3.9%(유아와의 의사소통 68.3%,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31.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교실 내에서 유아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하

도록 해 이를 재분류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전반적인 이해력부족으로 인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지시사항의 주어는 이해하나 동작에서 오류를 범하며, 2가지 이상의 지시를 하게 될 경우 오류빈도가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높음), 발음이 좀 알아듣기 어려워 다시 재차 질문해야 하는 부분, 아예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 등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해력과 표현력 등 언어능력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기술하였다.

만 5세의 다문화가정 유아 80명과 일반가정 유아 80명 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연구한 정예리와 이숙희(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보다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농촌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이 일반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도시지역 다문화가정 유아보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개인변인, 보육교사변인, 보육시설 지원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 개인변인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지며, 보육교사 변인 및 보육시설 지원 변인과 관련해서는 보육교사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을 지원해줄수록 영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정정희 등, 2010). 이는 보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이해 및 교육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이 증가해도 언어발달 지체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경제적인 위험요소와 여러 관련 변인에 따라 주 양육자와 아동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불리한 영향으로 인해 초등학교 이후까지 언어발달이 지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황상삼·정옥란, 2008).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들을 위한 언어중재 개입이 필요하며, 거주 지역의 특성 상 교육적 혜택이 적고 교정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촌지역 다문화 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는 가정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와 제한성이 유아의 놀이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놀이성과 어떠한 하위범주에서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각각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 어떠한 하위범주 간에도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박윤자(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일반가정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김정숙(2005), 장은정(2001), Maccoby(198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가정유형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의한 양육행동 점수가 주관적 편견이나 긍정적 평정의 정도가 클 수 있는 반면, 교사의 유아 놀이성 평정은 비교적 객관적일 수 있는데, 일반가정 보다 평정의 편차가 큰 다문화 가정의 경우 두 변인 간의 상관이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유형별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 관계성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게 된 데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이 한국어 이해수준과 문화적인 양육관 등에 의한 영향으로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볼 때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유아의 놀이성이 갖는 내적 성향으로 인해 관계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에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가정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은 어머니가 합리적 지도와 제한성이 높을수록, 일반가정은 어머니의 제한성과 애정성이 높을수록 교사나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모두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과 격려 및 지원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하며 실제결과에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상호작용이 언어능력과의 연관성이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조유나·홍지은, 2010; 한충효, 1984; Tamis-Lemonda & Bornstein, 1989)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유아 모두 두 변인 간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가 역할, 사물,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 뿐만 아니라 가작화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협동적으로 계획에 참여하며, 협동

이나 공유하기와 같은 기술이 반영되는 사회적요소와 함께 놀이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교류를 하는 언어적 요소도 포함(유애열, 2004)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들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언어의 사용이 요구되어지므로,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에 매우 높은 관계성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정 유형별로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놀이성 하위범주 중 자기가 속한 놀이 집단의 또래들과의 협력성 및 다른 유아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발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 놀이에서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른 성격의 역할이나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 내는가에 해당하는 '인지적 자발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교사 질문지를 통해 다문화가정 유아를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통과 사회성·정서조절의 발달문제가 가장 많았음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자발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의사소통도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할 때 소극적이며 또래관계 형성이 어려워 혼자놀이 형태를 보이거나 또래의 놀이 행동을 탐색한 비놀이 활동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관계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박미경, 2007). 다문화가정 사회·정서발달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이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구효진, 2009),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은 어머니의 언어적 요인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환경적 맥락에서 파생된 것으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다른 영역의 발달상의 잠재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유아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의 관찰 및 평정자는 유아의 담임교사로서, 유아교사의 다문화경력 및 재교육 여부- 본 연구에 선정된 교사의 다문화경력은 전체 교사경력에 비해 짧고, 다문화경력에 비해 다문화가정 유아 관련 재교육 경험은 적음-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및 의사소통능력 평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정 유형별로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추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사회적 자발성(놀이성), 합리적 지도(양육행동), 유머 감각(놀이성) 순으로, 일반가정의 유아는 인지적 자발성(놀이성), 제한성(양육행동)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애정-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냈으며, 거부-통제적 양육태도는 언어발달의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원길, 2010). 본 연구의 결과도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적절한 제한을 둘수록 자녀의 발달 영역 점수가 높고, 적대적이나 일관성 없이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거부적, 부정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선행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놀이와 언어 및 의사소통 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1세 전후한 영아는 놀이와 관련된 의도(intentions)를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Bruner, 1981), 3세 째 유아는 놀이역할과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병행하여 놀 수 있다(Smilansky, 1968). 4세 째 유아는 사회극놀이에서 역할과 스크립터를 사용하며 협상할 수 있고, 활동의 특성을 계획하고, 놀이의 계열성을 유지시키고, 또래 간의 공유된 경험, 타인의 관점과 지식, 놀이참여자들과 전개되지 않는 가정(unfolding pretense)에 상호작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Farver, 1992; Giffin, 1984). Howes(1992)는 가상놀이는 의사소통기술, 정서적 이해, 사회적 조망수용과 같은 발달의 중요한 기여자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의사소통(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문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인 합리적지도·제한성·애정성·반응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심층 면접 또는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의 경우 어머니들의 한국어 급수(5급정도)를 제한하여 신뢰도를 높이거나,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한글과 대역 혹은 원어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을 교사가 평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후, 놀이성을 평정하거나, 유아의 언어능력 검

사를 실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의 범위는 결혼이민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제한하였기에, 넓은 의미의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일한 교사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유아가 저평가 되어졌을 수도 있다. 이에 후속 비교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선정방법과 평가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현재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거주하는 지역현황, 국적별현황뿐만 아니라 전국 다문화가정 실태 현황이 반영된 표집이 이루어짐으로써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대상 표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이 세 변인간의 차이는 문화적인 배경 차이보다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어린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조기개입과 중재가 필요함을 밝혔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보라(2009). **집단치료놀이가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련(2000).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 및 사고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소영(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주드림(2008). 다문화가정 '학교 밖 자녀들: 10명 중 7명' 고등학교 미진학. 2008. 11. 10.
- 구수연(2010). 보육교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특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119-146.
- 구효진(2009).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공격성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9(3), 1-21.
- 권순희(2006).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교육정책 모색-호주의 언어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223-251.
- 김보라(2008). **국제결혼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7).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자녀관계 및 유아의 놀이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1), 33-76.
- 김정년(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기질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가정과 농촌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지위 및 놀이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선(2006). 국민, 半국민, 非국민-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12, 77-106.
- 김혜영(2010). **구조화된 집단놀이 활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엄정애(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학회지**, 28(1), 141-156.
- 박윤자(2005).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 서울: 다문화 가족과.
- 백미옥(200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문화와 한국어의 통합 교육 연구: 초급 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선우현·김하정(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 **아동교육**, 18(4), 143-155.
- 송요현·현은강(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2), 35-52.
- 송유민(2010). **전통놀이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계일보(2007). 다민족사회 코리아 리포트: 2050년엔 외국인 400만 명 10명 중 한 명 꼴. 2007. 4. 27.
- 신은수·강의정(2003). 사회극 놀이에서의 가작화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연구. **사회과학연구**, 9, 147-170.
- 안산신문(2007). 이주여성 고민 자녀양육-국적·가정폭력 많아.

2007. 1. 31.
- 양옥경 · 김연수 · 이방연(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오가실 · 김희순 · 원대영 · 김태임 · 전화연 · 이인혜 외(2006). 입원 아동의 자연적 놀이활동. **아동간호학회지**, 12(4), 486-494.
- 우현경 · 정현심 · 최나야 · 이순형 · 이강이(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영의(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놀이성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3), 239-257.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의 개입에 관한 관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형숙(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 이경연(2007). **문화교육 경음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 · 서현(2008).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교육실태 및 교사들의 인식: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4), 147-166.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지혜(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10).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정서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련 · 이귀옥(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05-216.
- 임윤주(2010).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조절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 · 조혜정(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회지**, 10(1), 251-268.
- 장유경 · 이근영 · 광금주 · 성현란(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227-241.
- 장은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귀자(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영 · 정정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유아교육연구**, 30(3), 141-168.
- 정예리 · 이숙희(2010). 거주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힘의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63, 79-108.
- 정정희 · 정민영 · 김민정 · 허경아 · 홍희주(2010).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의사소통능력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3-44.
- 주영희(1983).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의 연구. **유아교육연구**, 4(1), 79-96.
- 조유나 · 홍지은(2010). 영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64, 99-117.
- 최나야 · 우현경 · 정현심 · 박혜준 · 이순형(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55-268.
- 최주연(2001). **극놀이 유형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대전: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포럼**, 151, 29-5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07-19-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석실 · 박주희(2007). 유아의 성, 놀이성, 기질 및 발달수준과 사회구성놀이 질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09-230.
- 하영례(2001). 놀이 연구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다학문접근이 주는 시사점 고찰. **놀이치료연구**, 5(2), 95-110.
- 한충효(1984). 초기환경의 효과: 모자관계의 상호작용. **인문학연구**, 19(1), 175-190.
- 황상심(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초기 표현어휘 발달과 성차. 언어치료연구**, 19(1), 193-209.
- 황상심 · 정옥란(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관련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황윤세(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 및 교사-유아 관계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11-228.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서울: 자치행정과.
- 歐陽俊林(1999). 兒童語義習得與認知發展研究述略. **語言文字應用**, 30(2), 47-50.
- 夏瑞雪 · 周愛保(2008). 回漢藏3~6歲幼兒語言發展的差異與影響因素. **學前教育研究**, 158(2), 35-60.
- Aquilar, T. E.(1985). Social and enviornmental barriers to playfulness. In J. L. Frost & S. Sunderine (Eds.), *When Children play* (pp. 73-76). Wheaton, England: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Barnett, L. A.(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2-74.
- Bruner, J.(1986). Play, thought and language. *Quarterly Review of Education*, 16(1), 77-83.
- Carew, J.(1980). Experience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at home and in day-care.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 6-7.
- Choi, S.(2000). Caregiver input in English and Korean : use of nouns and verbs in book-reading and toy-play contexts. *Journal of Child Language*, 27, 36-96.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 M.(1977).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8, 595-603.
- Farver, J. A.(1992). Communicating shared meaning in social pretend pla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4), 501-516.
- Giffin, H.(1984). The coordination of meaning in creation of a shared make-believe reality. In J. Bretherton (Ed.), *Symbolic play: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pp. 73-100). Orlando, FL: Academic Press.
- Hymes, D.(1974). *Foundation in sociolinguistic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owes, C.(1983). Preschool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 on sociometric assess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9, 237-260.
- Howes, C., & Matheson, C. C.(1992).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competent play with peer: Social and social preten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61-974.
- Lieberman, J. N.(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Mccabe, P. L., & Meller, P. J.(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social competence: How language impairment affects social growth. *Psychological in the Schools*, 41(3), 313-321.
- Owens, R. E.(2005). *Language Development*: Pearson Education, Inc. 언어발달. 이승복 · 이희란(역)(2005). 서울: 시그마프레스
- Singer, D. G., & Rummo, J.(1973). Identical creativity and behavior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2), 154-161.
- Smilansky, S.(1968). *The effects of sociodramatic play o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Y: Wiley.
- Tamis-LeMonda, C. S., & Bornstein(1989). Habituation and maternal encouragement of attention in infancy as predictors of toddler language, play, and representation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738-751.
- Udwin, O., & Shmukler, D.(1981).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economics, and home background factors on children's ability to engage in imaginative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66-72.

□ 접수일 : 2011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01일